



시몬의 집에서의 그리스도, 디에릭 보우츠(1420-1475), 베를린 국립박물관 소장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루카 7, 47,50)

[제1독서] 사무엘기 하권 12, 7ㄱ-10.13

[제2독서] 갈라티아서 2, 16.19-21

[화답송] 시편 32(31),1-2.5.7.11
(◎ 5ㄴ 참조)

[복음 환호송]

◎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셨네.◎



주 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 하 소 서

[복음] 루카 7,36-8,3 <또는 7,36-50>

-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
- 의인들이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이여,
모두 환호하여라.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48]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 봉헌성가: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 성체성가: [153] 오소서 주 예수여
[154] 주여 어서 오소서
- 파견성가: [202] 구세주의 성심이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Your sins are forgiven.”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되레 성을 내고 뻔뻔히 구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라고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은 겸손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충직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그 남편을 위험한 전장으로 내몰아 죽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여도 하느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예언자 나탄은 이 사실에 대해 다윗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를 꾸짖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2사무 12,13)라고 말하며 하느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루카는 죄인인 한 여인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바릅니다. 초대한 바리사이는 주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말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속으로 비난합니다.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행실이 안 좋다고 평이 나 있는 그녀가 바로 죄인임을 주님께서 모르신다면 진정한 예언자도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시고 시몬을 불러 오백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오십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채권자는 그 둘에게 빚을 각각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채권자에게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물론 베드로는 빚을 더 탕감받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끝에 죄 많은 그 여인이 사실 크게 용서 받았다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줄곧 당신의 발을 눈물로 적시며 닦고 향유를 바르는, 회개를 위한 지극한 정성을 보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루카 7,48)라고 하시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50절)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독서의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던 여인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이웃을 존경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사도 바오로의 편지에서 보듯 행복한 나와 그리스도가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It is not easy for anyone to admit his fault. We often see some people, who never accept that they made mistake and get angry against other people shamelessly. We blame those kinds of people, but it is a hard thing to accept one's fault and ask forgiveness.

King David took Bathsheba, daughter of Eliam, and wife of Uriah the Hittite, Joab's armor-bearer, and made her pregnant. In order to conceal his sin, David sent her husband to a dangerous front of battlefield and got him killed. In the sight of the Lord what David had done was evil. The Lord sent Nathan to David and scolded him. Then David said to Nathan,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Luke tells us the story of a sinful woman. A Pharisee invited Jesus to dine with him, and he entered the Pharisee's house and reclined at table. Bringing an alabaster flask of ointment, the woman stood behind Jesus at his feet weeping and began to bathe his feet with her tears. Then she wiped them with her hair, kissed them, and anointed them with the ointment. When the Pharisee who had invited him saw this, he said to himself, "If this man were a prophet, he would know who and what sort of woman this is who is touching him, that she is a sinner."

Jesus said to Simon in reply, "Two people were in debt to a certain creditor; one owed five hundred days' wages and the other owed fifty. Since they were unable to repay the debt, he forgave it for both. Which of them will love him more?" Simon said in reply, "The one, I suppose, whose larger debt was forgiven." He said to him, "You have judged rightly."

Jesus told them the woman was forgiven more because she was more sinful. He said to her, "Your sins are forgiven." And then he said to the woman,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It is very important to repent one's faults and sins. Real repentance begins with admitting and accepting one's sin. Only then, the Lord forgive the sins and lead us to the right way. And only after that, we can live the life in the unity with Christ as Paul Apostle wrote: "Yet I live, no longer I, but Christ lives in me"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하는 성체조배 ①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나와 가까운 친구가 나를 찾아오면 기쁘게 맞아들이고, 좋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매일매일 나를 찾아오신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시작 기도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과 성체로 저와 함께 계시는 당신께
찬미와 흠숭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저를 보고 계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고, 당신에게서만 기대하오니
예수님, 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유익한 모든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멘.

2 기도 지향

(내가 바라는 기도의 지향을 말씀드립니다.)

3 성령께 드리는 기도

성령님, 제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아 주시어
당신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소서.

4 말씀 (반복해서 읽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에 머문다.)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묵시 3,20)

5 묵상

요한묵시록에는 무척 아름다운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 그 문 앞에 서서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묵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날마다 성령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6 새김 (5-10 분 정도 침묵 중에 기도하며 내게 주시는 주님 말씀을 되새긴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그럴때 어떻게 응답을 드리는지 돌아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

7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이어서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어머니,
제 안에 들어오시려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
제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은총을 청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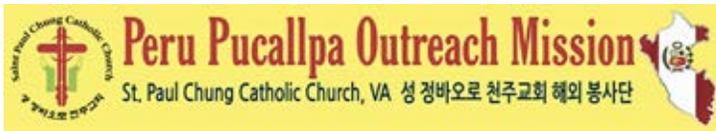
8 마침기도

사랑 때문에 거룩한 감실 안에 머무시며
제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
당신 말씀에서 길어 올린 풍요로운 은총과 참된 위로는
제 삶의 희망이 됩니다.
바라는 모든 이의 구원이신 주님,
오늘 제가 드린 기도를 너그럽이 받아주시고
제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저의 선을 위하여 마련하신
주님의 뜻을 믿고 온전히 따르게 해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 하는 성체조배

(성바오로딸 수도회 역임)를 하상주보에 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성체조배를 하다보면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성삼위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날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함으로써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추고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내 중)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페루 선교 기금 모금 위해 김밥과 차 판매 -

제5차 페루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김밥·차 판매가 지난 5일(일) 오전 8시 미사 후부터 오후 1시까지 친교실에서 있었다. 페루 선교 참가자들이 김밥과 시원한 냉커피를 제공한 가운데 많은 신자들이 격려해 주고 동참해 준 결과 2천 9백 85불의 성금이 모였다. 이날 참여한 페루 선교 단원들은 “공동체가 보내주는 기도와 관심이 우리의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큰 원동력”이라며 “협조해 주신 모든 교우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 전했다. 페루 선교단은 오는 6월 19일(일) 성원경 지도 신부와 전체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7월 3일(일) 미사 중에 파견식을 갖는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 첫 페루 선교를 다녀와서 - 심 안젤라

저는 2013년 6월, 처음으로 페루 뿌갈파 선교단에 동참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조금 불안하기도 했지만 용기와 희생이 요구되는 이 사도직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저희를 파견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적인 도움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단원들은 가기 전 준비 모임에서 복음을 묵상하고 성찰하며 참 선교의 의미를 알고 그 분의 도구로써 영적인 풍요로움도 얻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스페인어를 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간단한 용어책과 진료 협조에 필요한 질문을 외우면서 과연 의사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니 ‘미리 예비하시는 우리의 주님’은 멕시코에서 영어와 스페인어가 능통한 대학생 선교사 5명을 통하여 통역은 물론 함께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미사로 시작하여 그날의 사도직 점검 후 각기 일터로 나가면서 의료, 미용, 건축, 여름 학교 영어 봉사 등 일정은 필요에 따라 바빠 돌아갔지만 저희 모두 기쁘게 자신들을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용기와 인내, 열악한 조건에서 아무도 불평없이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그곳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모습은 참으로 자랑스러웠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미용봉사를 하신 두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는 깎인 머리카락을 보고야 알았고, 마음에 들어 사랑하며 기뻐하는 어린애들과 젊은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두 형제님의 건축 봉사는 현지 봉사자에게도 기술이 전달되어 자신들이 더 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봉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개 개인에게 이렇게 특별한 선물들을 주셨지만 함께 일하면서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나를 내어줄 때 주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저희를 채워주시고 필요에 따라 어떻게 적응할 지도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일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느꼈습니다.

오고 가는 날을 빼고 나흘 동안 698명의 진료를 맡는 동안 생후 5일된 영아에서 90살까지, 그리고 나이 어린 임산부들도 많았습니다. 18개월 되었다는 한 아이는 제 눈에는 겨우 몇 개월로 보일 만큼 영양과 건강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의사 형제님이 진료하는 동안 저는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화기 사진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 순간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신음 비슷한 음성이 울려와 심장이 멈추는 듯했고 저는 이 음성에 놀라 가슴이 두근거리 사진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 성찰 때야 저는 그 아이가 바로 제가 오늘 체험한 ‘아기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더운 날씨와 먼지 구덩이에 어린이들을 안고, 엮고, 손을 잡고 앉아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은 참으로 양순하고,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의료 봉사 장소로 쓰여진 교육관(교실 7개, 친교실 1개)은 바로 여러분들이 몇 년동안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건축 중에 있어서 이번 진료에 햇볕을 가려 주는 훌륭한 장소였지만 아직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사도직 체험에서 얻은 영적 풍요로움은 저에게 더 깊은 사랑을 하고자 하는 열망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는 기쁨, 또 기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일상 삶에서 찾아가도록 부추깁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젊은 친구들이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사도직에서 깊은 하느님 체험을 통하여 큰 믿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에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함께 한 저희 전체 공동체와 파견된 저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 체험이 곧 제 자신이 선교되고, 그 에너지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 15)



June Month of the Sacred Heart <Part II>

The Popes on Devotion to the Sacred Heart



The feast of the Sacred Heart was approved for specified dioceses by Clement XIII in 1765 and extended to the whole Church by Pius IX in 1856. In 1889 Pope Leo XIII elevated it to the rank of first class and, through an encyclical letter in 1899, dedicated the whole Catholic world to the Sacred Heart of Jesus. Devotion to the Sacred Heart was

also an essential component of Pope John Paul II's hopes for the "new evangelization" called for by the Church. "For evangelization today," he said, "the Heart of Christ must be recognized as the heart of the Church: It is He who calls us to conversion, to reconciliation. It is He who leads pure hearts and those hungering for justice along the way of the Beatitudes. It is He who achieves the warm communion of the members of the one Body. It is He who enables us to adhere to the Good News and to accept the promise of eternal life. It is He who sends us out on mission. The heart-to-heart with Jesus broadens the human heart on a global scale."

Teacher's appreciation day : June 5

Last Sunday, 22 CCD and 10 CYO St. Paul Chung Sunday School teachers and Father Seong were recognized by students and parents with love and thanks.

Teachers were deeply touched by the thanking card and drawings that was delivered from their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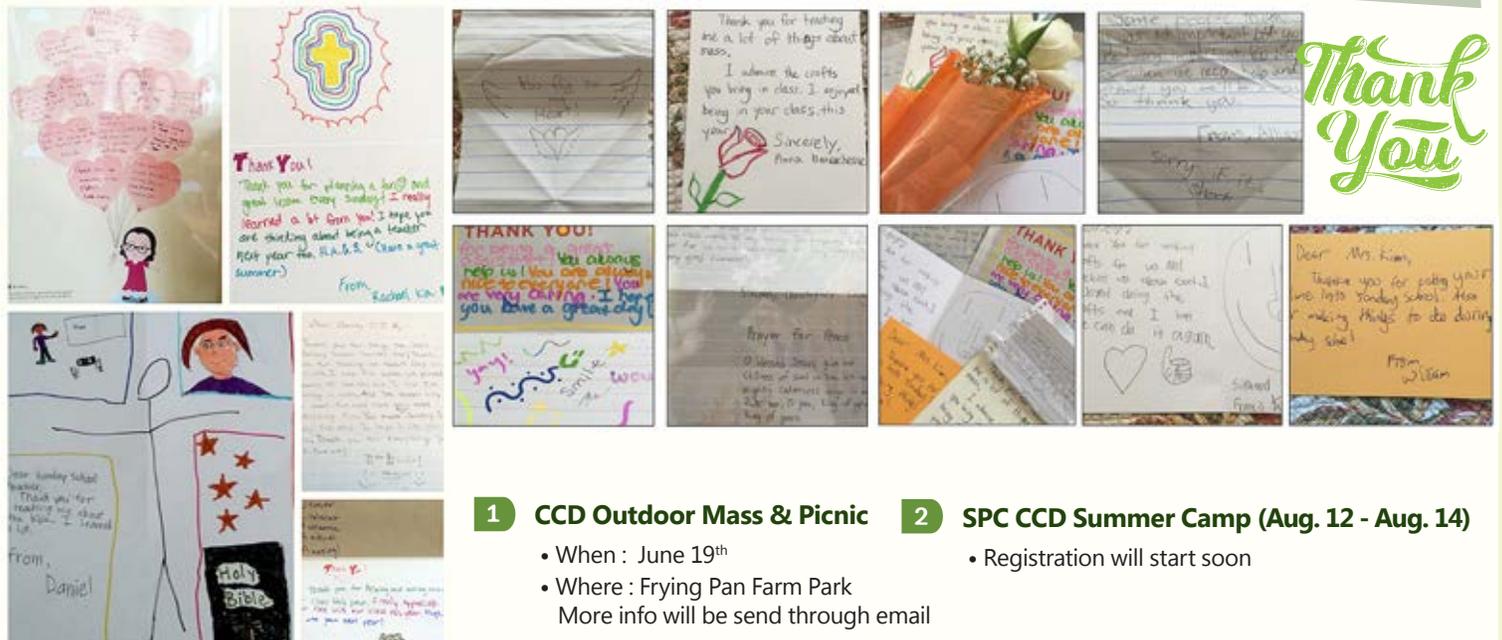
Greetings,

W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give our sincere thank you and appreciation to Father Sung, CCD, CYO Vice principles, and all the Sunday School teachers for their tireless support, dedication and leadership during the past year.

We wish all the Sunday School teachers many blessing, well being and fulfilled happiness.

Again, thank you all from bottom of my heart.

From 2016 Parent Teacher Organization (PTO)



- 1 CCD Outdoor Mass & Picnic**
 - When : June 19th
 - Where : Frying Pan Farm Park
 - More info will be send through email
- 2 SPC CCD Summer Camp (Aug. 12 - Aug. 14)**
 - Registration will start soon



◆ 6월 구역 임원 교육 실시

예수 성심 성월인 6월의 구역 임원 교육이 지난 5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었다. 구역회장 및 봉사자 36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경원(마르띠노) 구역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말씀 나누기(루카 7, 36-50), 본당 신부님 강복, 기타 구역 현안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역 현안으로 구역별 성서 쓰기 노트 판매 협조를 논의했다.

◆ 레지오 마리아 가두선교

본당의 대표적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의 브레시디움 차원의 가두선교가 5월에 이어 6월에도 지난 5일(일) 센터빌 롯데 쇼핑과 H 마트 앞에서 있었다. 센터빌 롯데 쇼핑에는 영광의 어머니(단장 정우석 빌립보) 단원 3명이, 센터빌 H 마트에는 천주의 성모(단장 심영보 마티아) 및 환희의 어머니(단장 박진석 요셉) 단원 4명이 선교했다. 이들은 “천주교를 알립니다”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글자가 앞뒤로 선명하게 인쇄된 어깨띠를 두르고 천주교 소개 홍보물을 쇼핑객들에게 전했으며, 두번째 가두선교에 나온 단원들은 전보다 더 자신있게 선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6월부터는 8개 브레시디움이 매주 교대로 가두선교에 나설 예정이다.



◆ 바오로회 제2차 총회

본당의 30대 신자 모임인 바오로회(회장 김윤식 블라시오)는 지난 5일(일) 5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제2차 총회를 가졌다. 총 11 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 보고 및 앞으로 있을 바오로회 계획을 알리고 음식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바오로회는 하반기 활동으로 여름 가족 캠핑(8월 5일- 7일), 제3차 총회(10월), 성지 순례 및 과수원 나들이(11월), 12월 연말 파티를 계획하고 있다.



◆ 사무실 봉사자 피크닉

토요일 사무실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지난 5월 28일(토) 포트 벨리에 있는 Elizabeth Furance 공원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1시간의 산행을 하고 내려와 바베큐 식사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야외 미사를 끝으로 즐거운 산행을 마무리했다.



◆ 꾸르실료 주최 동중부 친선 골프대회



꾸르실료 주최 동중부 골프대회가 지난 5일(일) 오후 1시부터 프레젠밸리 골프장에서 열렸다. 본당 66명, 워싱턴 72명, 조지타운 4명, 비신자 2명 이상 참가했으며 본당의 꾸르실료에서 봉사자로 20명이 참여했다. 푸른 잔디에서 144명의 골퍼들은 시원한 샷으로 자신의 기량을 뽐냈으며 각 본당에서 준비한 음식과 경품 추첨으로 즐거운 주말 오후를 보냈다. 시니어 1등으로 본당의 최정길 요셉 형제(A조 1등)와 이인호 베드로 형제(B조 1등)가 차지했으며, 우승은 워싱턴 성당의 황영만 형제가 차지했다.

1 단체장 회의

• 일시: 6월 12일 (일) 오전 11:30 (B-3, 4)

2 베드로 모임 (40대 교우)

• 일시: 6월 12일 (일) 오후 12시, 나눔터

3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6월 12일 (일) 오후 1시 (B-3, 4)

4 복사단 모임

• 일시: 6월 12일 (일) 오후 12:40 (B-1, 2)
학생 미사 중에 졸업하는 복사들에게 감사패 전달식이 있습니다.

5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음악회 참가자 모집

• 본당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음악회를 엽니다. 기존 성가대원 및 일반 신자들의 참가 지원서를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음악회 일시: 9월 24일 (토) 저녁 미사후
• 문의: 본당 사무실, 노혜란 (248) 494-6060

6 효도한마당 행사

• 일시: 6월 19일 (일) 오전 11:40, 친교실

7 복사단 학생 모집

• 대상: 첫영성체 받은 학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 신청: 6월 12일까지 사무실
• 문의: 권용우 스테파노 (571) 244-0333

8 주일학교 교사 모임

• 일시: 6월 12일 (일) 오후 1시

9 재속 프란치스코회 모임

• 일시: 6월 12일 (일) 오후 8시

10 제75차 새 예비자 모집

• 기간: 6월 12일 - 7월 3일
• 문의: 유제운 (703) 628- 9314

11 ME 주말 참가 부부 환영식

• 일시: 6월 12(일) 10시 미사 후
• 장소: 성당 뒷마당 (부역 뒤)
• 문의: 김영술 아놀드 부부 (703) 477-2446

12 지하실 창고 정리

• 지하실 창고에 물건을 보관한 부서는 창고 정리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6월 18일 (토) 오전 9시 - 오후 4시
• 장소: 지하실 창고
오전 9시 - 오후 12시 청소년 사도회 단체 (주일학교, 로고스, 라파엘, PTA)
오후 12시 - 오후 2시 구역부
오후 2시 - 오후 4시 단체부
• 문의: 김진호 다니엘 (703) 300-5420

13 제5차 페루 선교단 전체 모임

• 선교 전 마무리 사항 점검 및 지도 신부님 말씀을 듣는 페루 선교단원 전체 모임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단원들의 부모님 참석도 환영합니다.
• 일시: 6월 19일 (일) 오후 3시 - 4:30
• 장소: 하상관
• 지도 신부: 성원경 신부
• 파견식: 7월 3일 (일) 10시 미사 중

14 알링턴 교구 다문화 미사

• 일시: 6월 25일 (토) 오후 5:30
• 장소: The Cathedral of St. Thomas More 주교좌 성당
• 미사 전 후에 주교좌 성당 내에 있는 다문화 센터에서 준비한 공연 관람 및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 신청: 구역부와 단체부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복장: 한복)
• 문의: 최재필 제프리 (703) 589-6580

15 테니스 동호회 회원 모집

• 성당 테니스 동호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정기모임: 매 주일 오후 4시 (Green Briar 코트)
• 문의: 박동성 미카엘 (571) 226-7755, 원철희 토마스 (703) 203-0332

16 2016 성인 견진식 사진

• 성인 견진식 사진을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2차 헌금 ***

이번 주일에 페루 선교 기금 모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상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6월 16일 (목) 오후 9시~11시

- **오늘의 양식**: 성 정 바오로 성당 주일 강론
- **가톨릭 소식**: 교황청, 세계, 한국의 주요 가톨릭 소식 종합
- **생명 그리고 사랑**: 한국 가톨릭 의료원의 첨단 의학 탐방 시리즈 - 서울 성모병원 간이식 동우회
- **우리 시대 사람들**: 또 하나의 눈 시각 장애인 안내견 이야기

6월 17일 (금) 오후 10시~11시

- **성경교실**: 정인준 신부의 성경 교실

♡ 4 복음서 필사 노트 전시 ♡

4 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가, 요한 복음) 필사노트를 9월 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쓴 필사 노트는 본당 공동체 창설 30주년 기념일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3년(1차)과 2015년(2차)에 성경 통독을 마친 신자들은 사무실에 마련된 양식서에 명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6년 6월 5일 (연중 제 10주일)

주일헌금	\$ 7,328.00
교무금	\$ 9,850.00
교무금(신용카드)	\$ 2,870.00
특별헌금	\$ 0.00
2차 헌금	\$ 9,531
합계	\$ 29,579.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투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전례 및 청소 담당

6월 12일	스프링필드
6월 19일	프린스 윌리엄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온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이강영(테오도로),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윤벽참(프란치스코), 윤시훈(아우구스틴), 임현석(아버뜨),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손범기(펠릭스), 장동건(스테파노), 정중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전성호(세례자 요한), 장동길(피터),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헬(미카엘라), 이솔(루시아), 에스터 정(세레나),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6월 12일(일)	연중 제11주일	단체장 회의(11:30, B-3, 4), 꼬미시움 월례회의(13:00, B-3, 4), 복사단 모임(12:40, B-1, 2), 주일학교 교사 모임(13:00), 재속프란치스코회 모임(20:00), 베드로모임(12:00, 나눔터)
13일(월)	파도바의 성안토니오 사제 학자 기념일	아침 미사(6:00, 성당)
14일(화)	연중 제11주간 화요일	레지오 마리아에(20:00, 친교실), 성령기도회(20:00, 친교실), 예비자 교리(20:00)
15일(수)	연중 제11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에(9:30, 친교실), 성경학교(20:00)
16일(목)	연중 제11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6:00, 성당)
17일(금)	연중 제11주간 금요일	사도 임원회(20:00), CLC (20:00, 친교실)
18일(토)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	아침 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에 (9:30, 친교실)
19일(일)	연중 제12주일	Fathers Day 효도한마당(11:40, 친교실), Quo Vadis(성소자 모임 12:45), 꾸리아월례회의(11:40, 하상관 B-4,5), CCD 야외미사, 주일학교 임원회의(13:00), CLC피정(18:00)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18-5404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Youngs Health Care Inc.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용자, 재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이역찬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엽)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썸머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Susan Interior 커튼, 블라인드 김수산나 703-981-4296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영업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 챌탈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마태오 흥 종합보험 자동차, 집, 사업체, 은퇴연금 장기간호 / 생명 / 건강보험 703-969-8956 703-969-8954	신디 리 부동산 텔리 전문 사업체 이루시아 703-338-0008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Springfield TOYOTA New / Used Cars 조상준(유스티노) 703-269-1400 Cell. 703-909-0688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찬탈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중미반점 (애난데일 예촌과 WELLS FARGO BANK사이)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 클라라 생명, 건강, 비즈니스 자동차, 주택 703-649-2110	5분 도정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Kitchen, Deck Sunroom 해성건축 김영수 (요셉) 571-477-5996	에스터'S 키친 케이팅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주일 저녁 6시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주)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PARISH STAFF 주임신부 정인준 (파트리치오)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